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찬46/새31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정운 장로 2부/김세진 장로 3부/김인규 장로 4부/안지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이현철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18:35-43.....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7:14-24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11) 누구도 멈출 수 없던 부르짖음에 멈춰선 예수님의 발걸음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5) 영적 무주의 맹시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주님 말씀하시면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은혜 아니면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기 위해 멈추세요.

Do not stop praying; stop in order to pra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저희 베델교회 예살 청년 공동체를 섬겼던 이현우 목사가 설교하면서 목이 터지라 외쳤던 메시지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농고, 공고 출신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 왜 공부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다가 목사가 되고, 지금은 서울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부산 수영로교회 후임목사로 내정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은 아들 지웅이가 가진 신병 때문에, 이곳 미국에서 병원을 다니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지웅이가 앓고 있는 만성 심장병과 뇌병변을 일으키는 뇌신경의 종양은 늘 병원을 다니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미국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행을 결정한 목사님 가정을 보내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아들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었고, 수영로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번에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갈 제 3대 목사님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의 설교는 설교라기 보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늘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은 기도의 열기였고, 기도의 생명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늘 어김없이 응답되었는데, 기도한 것 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찾아 오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목사였고, 한참 후배였지만, 그의 영적 갈망과 뜨거움은 저에게도 전도되었습니다. 매 주일 설교 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피드백을 주면서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목숨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멈추십시오"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만 믿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만 들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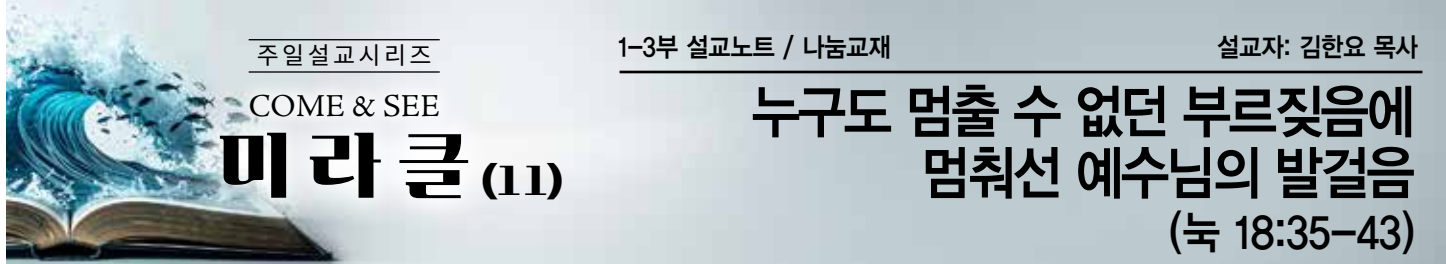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전화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낙심한 시간에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파이프로 흘러 내립니다. 하나님의 보고 창고에서 흘러 나오는 능력도 기도 파이프를 타고 옵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The message that Pastor Hyun-woo Lee—who once served our Bethel Church's Yesalm Young Adult Community—shouted at the top of his lungs while preaching still rings clearly in my ears. Despite coming from an agricultural and technical high school background, Pastor Lee met God, realized why he needed to study, and cried out to Him in tears. He eventually became a pastor and has now been appointed as the successor to lead Busan Suyeongro Church, which is known as the largest church south of Seoul. He was forced to return to Korea because it was difficult to frequent hospitals here in the United States for his son Ji-woong who suffers from an illness. I still remember how so many people tried their best to help, but it was incredibly difficult to sustain a long-term treatment plan involving constant hospital visits and medical consultations for the chronic heart disease and cranial nerve tumor causing brain lesions that Ji-woong suffered from. It was heartbreaking, but we sent the pastor's family off when they decided to head back to Korea. Looking back now, though it was his son's condition that took him back to Korea, he was highly recognized by the congregation while serving as an administrative pastor at Suyeongro Church, leading to his current appointment as the 3rd senior pastor to guide this mega church.

Looking back, whenever Pastor Lee stood at the pulpit, his sermons felt less like standard preaching and more like a desperate cry. There was always an intense earnestness—a fervor born of prayer that translated into vital spiritual life. And those prayers were answered without fail; God always met him with things far greater and better than what he had asked for. Although he was an associate pastor and a junior to me by a wide margin, his spiritual hunger and passion were highly contagious. Every Sunday, he would offer feedback saying, "Pastor, your sermon saved my life today." During every single service, he gave himself wholly to the Lord in prayer. His conclusion was always: "Do not stop praying. Stop in order to pray." It was always like that.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 33:3). Since the Almighty God has promised to answer if we simply cry out to Him and invoke His name, I believe that if we cry out resting solely on that promise, God—who knows exactly what we need most just by hearing our cries—will surely answer us.

Let us pray instead of worrying. Let us pray instead of making phone calls. Let us pray even more in times of discouragement. God's grace flows down through the pipeline of prayer. The power flowing from God's treasury also travels through the pipeline of prayer. Prayer is the best way. Prayer is the ultimate priority.



1.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을 통해 신앙과 '보는 것'의 관계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 구절들을 참고하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경험을 나눠 보십시오. (참고/ 요 3:3, 골 1:13, 고후 4:4)

2. 맹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약속을 붙들고 외치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와달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38-39절, 눅 20:41, 삼하7:12-16)
 -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군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39절)

3.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한 사람의 외침에 멈추셨을까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4.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대답은 무엇입니까?(참고/ 마 11:28, 히 13:5, 요 8:12, 요 7:37)

5.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용하기

말씀
변화
영매

■ 적용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주님 말씀하시면

사역 후기
금다식

순종의 자리에 주시는 기쁨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 동안 섬길 사역을 준비했기로 배정받던 날, 제 결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나, 어떤 사역이 주어 지더라도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 대부분의 안수집사님들은 주일에 사역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섬기는 '금다식' 사역은 단 한 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넘는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제가 바로 그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이제 두 살 반이 된 첫째 아이를 맡기고 나와야 하고, 편도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교통체증을 뚫고 금요일 오후에 파사데나에서 얼바인 교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금다식에서 제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설거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로를 챙기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해 주려고 애쓰는 봉사자분들과 팀장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요일 오후가 기다려집니다.

감사하게도 금다식 방학 기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아내도 어느 정도 회복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고 금다식 사역에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맞아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 아니면 가능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을 학기부터 다시 시작되는 금다식에는 아직 어린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 가정의 평

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도 제가 금다식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응원해 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 제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역을 통해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명성 집사



사역 소개
1부 예배팀

은혜의 자리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애 3:23)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주일 새벽,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주일 아침 6시, 11명의 사역자들이 조용히 본당 앞에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

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예배실을 환기하고, 바닥을 정리하고, 강단을 준비하며, 한 자리 한 자리를 점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한 분 두 분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저희는 밝은 미소로 주보를 건네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며 흘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드린 이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일 예배의 문을 여는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새벽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지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선갑 장로



훈련 간증
양육반

훈련을 통해 성숙으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달게 느껴져서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자반과 셀 모임을 통해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은 점차 식어갔고, 대학교 때와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마저 나이가 들수록 뜸해지면서 저는 결국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고 싶었지만, 저의 교만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양육반은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때때로 찬양을 듣고, 힘들 때만 가끔 기도하던 나태한 신앙생활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과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시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되었고, 올바른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기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제가 얼마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을 그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라기만 할 뿐 성숙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배우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며 훈련하심으로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며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속제를 하고, 특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도 성경, 찬송, 기도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문보연 집사

훈련 간증
제자반

제자반, 하나님의 선물



30주 동안 목사님과 제자반 동기들과 함께 성경 말씀과 교제를 통해 섬과 회복을 누렸던 시간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걱정했던 말씀 암송 또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각자가 가장 마음에 새긴 암송 말씀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훈련의 과정을 아시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수료 후 달라진 점은, 늘 고난이 두려

워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던 기도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나의 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던 저는 암송한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길인지, 저 선택이 하나님의 길인지 모르겠다'는 고민 속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든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반 동역자들과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위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신 '제자훈련은 끝이 아

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훈련받은 대로 전쟁터에 나가 싸워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제자훈련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일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큐티는 하나님과의 개인 큐티로, 암송했던 말씀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의 기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제자반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도 이어가며 훈련받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섬과 회복을 얻는 힐링 훈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자훈련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혜진 집사

훈련 간증
말씀 플러스

말씀 앞에 서다



말씀플러스를 통해 가장 크게 경험한 은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거나 이미 괜찮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말씀앞에 서니,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보다 제 생각과 감정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는 관찰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통해 비춰진 제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낙심하게 하기보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당장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었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플러스는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제 상황과 필요 중심으로 이해하려 했다면, 이제는 본문 자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하심을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었고, 제 신앙의 폭도 한층 넓어진 느낌입니다.

말씀플러스는 저에게 단순한 성경 공부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 준 귀한 통로였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강안젤라 권사

사역 후기
전도폭발 훈련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



전도폭발은 단순히 복음 제시 방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었고,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훈련에 참여하고,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일의 무게가 크고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며 시간을 조율해야 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수록 제 삶은 오히려 더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제 영혼을 지켜주었습니다.

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들 가운데 예비 훈련생이 보이고,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단계를 지나며,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훈련 과정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 삶의 자리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 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던 저의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며, 환경을 변화시키고 저의 우상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무력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교정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 삶으로도 다시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누리 보지 못하신 모든 분들을 전도폭발의 자리로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양정규 집사

처음 1단계와 2단계 때에는 외우는 것만으로도 벅했습니다. 하지만 3단계와 4단계를 지나며 점점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5단계와 임상 훈련을 받은 후에는 제가 훈련받는 사람에 머무

전도폭발은 예배와 훈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 학기 최소 10명의 대상자를 품고, 만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 예수채플: 이형석 목사
- 예수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한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중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KCC 워싱턴 DC 미션 인턴 리더십

KCC 워싱턴 DC 미션 지역은 잠언 31장 8절 말씀처럼 "너는 말 못 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라는 명령에 따라,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돕는 사역입니다. 매년 7월에 80여 명의 2세 중등학생 선교팀과 성인 봉사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워싱턴 DC로 가서 고통받는 북한 동족과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미국 대통령과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동안 우리 2세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북한 동족과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고, 지금은 그 법안들이 통과되어 수많은 북한 난민과 고아들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라난 한인 2세들이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해 Korean-American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워싱턴 DC에서 이루신 사역들을 체험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게 해 주는 사역입니다.

매년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 2세들의 미국 정부를 향한 호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 큰 기적을 베푸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2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학교에서 북한 실정을 알리는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의 감동적인 기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2세들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동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3박 4일간의 인턴십 미션 컨퍼런스 봉사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더운 워싱턴 DC에서 2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간: 7월 13일(월)~16일(목)
- ▶ 신청방법: 코트야드 부스
- ▶ 문의: 박성남 장로 (949)697-8531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6,7월)	6/28:	①부-김인권	②부-김정태	③부-김원용	④부-이민수
	7/5: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태원	③부-김종곤	④부-임지은
	7/12:	①부-김재호	②부-김종학	③부-김종현	④부-변은재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6,7월)	6/27:	이노아	7/4: 윤성식	7/11: 이배운	7/18: 유형석
	강단꽃(6,7월)	6/21: 이지애	6/28: 선상균, 조 궁	7/5: 미정	7/12: 조 루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형국(안과), 간호사-오선희 다음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김현옥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Happy Father's Day**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6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월)-6월 30일(화)
 신청: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6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제 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라는 말씀 아래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8월 1일(토) 오전 6시, 8월 2일(주일) 1-3부 예배
 강사: 노진준 목사 (순화설교자, PCM (Preaching Coaching Ministry) 박성일 목사 (기쁨의 교회 담임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종학 겸임교수)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장소: 튀르키예 안탈리아 /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패키지
 등록비 포함 항목: B2N 일정 간 호텔 숙박비, 공항-호텔 이동, 호텔-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이동,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입장료(불포함: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필요시), 기타 개인 경비 등)
 문의: 코트야드 부스,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헌 장로 (949)648-1907

◆ **Promise of Purity 예비 등록** POP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비 등록은 6월 30일(화)에 마감 됩니다.
 대상: 현재 4-6학년
 등록/문의: QR 코드, 위우정 집사 (714)423-4813



◆ **2026 GMMA 컨퍼런스** GMMA 컨퍼런스에 있는 저녁 집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주강사로 프랭클린 그래함, Dr. Ming Wang (영화 "Sight"의 실제 주인공) 외 3명과 함께 합니다.
 일시/장소: 6월 26일(금), 27일(토) 저녁 7시 30분, 본당
 강사: Dr. Peter Chung Sr.(President, GMMA), Franklin Graham(CEO, Samaritan's Purse)
 봉사자 모임 일시/장소: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한여름고등부(CIM) 여름수련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CON-FIDENCE'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6일(목)-8월 9일(일), Anchor Retreat Center
 등록: QR코드 및 CIM 단체 카톡방 구글폼 링크
 회비: \$220
 등록마감: 7/5 주일
 문의: 이준혁 집사 (562)400-4181,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소망 오케스트라 단원 및 TA 모집** 연주를 통해 장애를 넘어 소망의 힘을 전하는 소망 오케스트라에서 2026 가을학기 단원과 연습을 도와주실 보조교사(TA)를 찾습니다. 찬양과 영적 성장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소망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연주 하시기를 원하는 분과 연습 보조가 가능한 교인(TA)
 접수 마감: 8월 1일(토)까지 (8월 15일 오리엔테이션)
 문의: 정봉화 집사 (562)207-7010, 최신 권사(949) 331-5169,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 **큐티인 7월호 판매** QTin 7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채우시는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강단꽃 봉헌** 예배실 강대상의 꽃을 봉헌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여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여름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ERMON SERIES

COME & SEE
MIRACLE (11)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Jesus Stopped by a Cry That No One Could Stop

(Luke 18:35-43)

1. Through the blind man in the passage,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Bible spea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seeing.' Referring to the passages below,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of seeing something you couldn't see before as you walked in faith. (Ref: Jo 3:3, Col 1:13, 2 Cor 4:4)

2. Even though the blind man had never seen Jesus before, he called Him the "Son of David." This meaning can be described as a cry that clings tightly to God's promise. What is the meaning behind him asking to "have mercy on me" rather than simply asking to "help me"? (vv. 38-39, Lu 20:41, 2 Sam 7:12-16)
 - What is the "voice of the crowd" that hinders him from coming to Jesus? (v. 39)

3. Why did Jesus stop for this one person's cry out of all those many people? What does this scene show us about the heart of God?

4. Jesus asks the blind man,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f Jesus asks you that same question today, what would be your answer? (Ref: Mat 11:28, Heb 13:5, Jo 8:12, Jo 7:37)

5. Jesus says, "Your faith has healed you." What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ind man's faith? What kind of difference do you see when you compare it with your faith today?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I'd Rather Have Jesus (Hymn 102), If the Lord Tells Me So